

그리스 사회와 의사*

성 영 곤
서울대

Greek Society and the Physicians

SUNG Young-Gon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is paper, I have attempted a social history of Greek physicians with the help of archaeological evidences and contemporary testimonies. I aim at understanding of Hippocratic tradition in its practice by analyzing Hippocratic collections. The Hippocratic collections, *Corpus Hippocraticum*, throw light not only on the origins and early developments of classical medicine, but on its place in Greek society. It is commonplace of Hippocratic scholarship that these texts were written by different authors, and even originated in different periods of Greek medicine. But Hippocrates and the *Corpus* were regarded as more or less coextensive, and although a scholar in citing a text as authority might remark that it was thought not to be by Hippocrates, he would cite it none the less. To avoid this mistake, I have chosen the term "Hippocratic physician" to denote the authorship. By way of this term, I have attempted a synthetic account of Greek physicians' actual practice and its ideals in the Hippocratic tradition. My understanding of the tradition succeeds the revelations in my doctoral dissertation, one of which is the fact that Hippocratic tradition is amalgamation of ethical code with rational or scientific medical theory.

In examining some epigraphical and historical informations in comparison with the *Corpus*, the socio-economic status of the physicians, the relation between the temple-healing and rational medicine shall be revealed. In discussing the rationality of Hippocratic physician, the fact that the Hippocratic Tradition is the result of "enlightenment movement" become clear—that is, in some ways the contributions Hippocratic physicians made to natural science may be paralleled to the works of the Presocratic natural philosophers. And the fact that Greek medicine was a self-policing one gives some clues to the understanding of Jaeger's famous passage, "the Greek ideal of culture was the ideal of health."

19세기 중엽 Littré에 의한 「히포크라테스 전집」의 편찬¹⁾으로 시작된 그리스 의학에 대한 근대적 연구전통은 1930년대에 이르러 상당한 침체의 국면에 접어들지만, 1950년대부터는 새로운 활기를 되찾고 있다.²⁾ 이같은 활기는 한편으로는 히포크라테스와 그의 이름으로 전하는 전집, 즉 *Corpus Hippocraticum*에 대한 Edelstein의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연구성과가 등장한 30년대의 충격³⁾으로부터 벗어난 결과로, 혹은 *Corpus Medicorum Graecorum*으로 집대성되고 있는 새로운史料集들의 출간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⁴⁾, 다른 한편으로는 이 단계에 이르러 그리스 의학에 대한 연구가 *Corpus* 자체에 대한 문헌학적 관심을 벗어나서 보다 포괄적인 해석이 시도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자면 1950년대 이후의 새로운 특징중의 하나는 주된 연구대상이 Text로부터 Context로 옮겨 갔다는 사실인데, 헬레니즘기의 碑文연구를 통해 그리스 의료제도를 규명한 Cohn-Haft와 의학학과를 포함하여 코스 사회의 총체적인 역사를 다룬 Sherwin-White, 그리고 그에 앞선 Herzog의 선구적 연구는 고고학적인 성과를 수용한 대표적인 예들로 꼽을 수 있으며,⁵⁾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Fraser의 연구는 헬레니즘기의 의학을 사회사적인 맥락에서 다룬 성공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다.⁶⁾

이 논문에서 필자가 추구하는 관심은 이같은 새로운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그리스 의학이 이루어낸 구체적인 성과보다는 그같은 성과의 주역인 그리스 의사들을 대상으로 사회사적인 규명을 시도하는 것인데, 당대의 문헌들 및 碑文증거를 포함한 고고학적 연구성과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논의될 이 주제는 그리스 의학의 실천적 측면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반영한다. 동시에 실제

*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인 “그리스 의사와 히포크라테스 전통” (서울대, 1994) 중 제Ⅱ장, 1, 2절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Oeuvres complètes d'Hippocrate*, 10 vols. ed. by M.P.E. Littré (Paris, 1839-1861).

2) 문헌학자와 역사가들을 망라한 국제적 Colloquium이 1972년에 Strasbourg에서, 1975년에는 Mons에서 개최되었다. 전자의 성과는 *La collection hippocratique et son rôle dans l'histoire de la médecine: Colloque de Strasbourg 23-27 octobre 1972* (Leiden, 1975)로, 후자는 R. Joly에 의해 *Corpus Hippocraticum: Actes du colloque hippocratique de Mons 22-26 septembre 1975*, Editions Universitaire de Mons, série sciences humaines IV (Mons, 1977)로 정리되었다. W.D. Smith, *The Hippocratic Tradition* (Cornell Univ. Press), p.43을 참조할 것.

3) L. Edelstein, *Peri Aeron und die Sammlung der hippokratischen Schriften* (Berlin, 1931). Edelstein의 등장과 함께 성립된 히포크라테스 연구의 대립구도는 1930년대 이후 큰 변화를 겪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를 안에서 히포크라테스와 *Corpus*에 대한 흥미 자체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것은 그를 여전히 '의학의 아버지'로 보는 Littré 진영의 전통적 해석이지만 실제의 연구과정을 심화시키고 문헌분석을 넘어 보다 포괄적인 연구로 나아가게 한 것은 Edelstein의 회의주의라고 생각된다. 현재의 입장에서 되돌아 보면 Littré의 히포크라테스 연구는 갈레노스 등 고대 의학사가들의 문제의식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Edelstein의 회의주의는 고대의 히포크라테스 전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4세기부터 기원 후 2세기 까지, 즉 히포크라테스로부터 갈레노스까지의 시기가 규명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웠던 것이다. Edelstein의 研究史적 기여와 의의는 이같은 總論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1930년대부터 60년대까지 걸쳐 그가 주장했던 몇몇 各論의인 명제들, 즉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문헌이며, 그리스 의학은 당시의 자연철학자들로부터 과학적인 가르침을 받았으며, 알렉산드리아의 해부학자들은 죄인 등을 이용한 생체해부를 행했다는 등의 주장은 오늘날에도 지속되는 논쟁의 대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4) H. Diller, "Stand und Aufgaben der Hippokratesforschung," *Jahrbuch d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und Literatur* (Mainz, 1959), 271-287을 참조할 것.

5) L. Cohn-Haft, *The Public Physicians of Ancient Greece* (Massachusetts, 1956); S.M. Sherwin-White, *Ancient Cos* (Göttingen, 1978); R. Herzog, *Heilige Gesetze von Kos* (Berlin, 1928).

6) P.M. Fraser, *Ptolemaic Alexandria*, 2 vols. (Oxford, 1972).

의 진료과정에서 의사들이 직면했던 제반 상황들에 대한 필자의 논의는 *Corpus*에 나타난 의사들의 행태와 규범, 그리고 윤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이 경우 Context에 대한 개괄을 통해 Text, 즉 *Corpus*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 의학의 실천적 측면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은 어찌보면 자연스런 역사적 관심이지만, 이를 실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같은 곤란의 상당 부분은 *Corpus*가 히포크라테스 전통을 말해주는 거의 유일한 사료라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에 따라 *Corpus*에 포함된 의서들이 동일 저작자의 것이 아니며, 시기적으로도 크게 차이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면서도, 히포크라테스라는 인물과 *Corpus*가 동일시되고 후대의 저술이 전5세기의 히포크라테스와 관련되어 망설임 없이 인용됨으로써 각 의서들 사이에 명백히 드러나 있는 모순들이 무시되거나 쉽게 용인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⁷⁾ 히포크라테스와 그 추종자를 주체로 하는 한 실제의 연구단계에서 이같은 위험에 노출되지 않기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히포크라테스' 대신 '그리스 의사'를 연구대상으로 삼고, 그럼으로써 이같은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 Jones도 말했듯이 저작자 문제는 전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반면, 우리는 어쨌든 *Corpus*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몇몇 의서들은 진정으로 위대한 성과물인 것이며, '호메로스 문제'와 마찬가지로 '히포크라테스 문제'—*Corpus*가 과연 히포크라테스의 저술인가 하는—가 우리로부터 그 유산을 빼앗아 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⁸⁾

한편 이 논문은 *Corpus*를 일차사료로 인용하겠지만, 그 못지않게 당대의 문헌과 碑文증거 등을 검토할 것이다. 자료의 성격상 해당시기 및 지역에 따른 특성을 엄격히 구분하여 논의하기는 힘든데, 古典期 아테나이를 제외하면 헬레니즘기에 상당한 비중을 두게 된다. 그리스 의사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히포크라테스 의학과 神殿의술의 관계를 살피고, 그럼으로써 의료직업의 종사자들이 사회적 제반 여건에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 의사, 혹은 의술은 어떠한 사회적 위치를 차지했으며 그 속에서 히포크라테스 의학은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가지는지, 또 의료라는 사회적 자원에 대한 그리스 사회의 통제와 지원은 어떤 것이었는지 등을 살피게 된다. 사회와 제도의 특수성은 비교의 관점을 택할 때 더욱 부각되므로, 논의에 따라 오리엔트와의 비교가 일부 시도될 것이다. 아울러 그리스 의학의 理想的 측면 보다는 그리스 의료의 실상에 더욱 관심을 보일 것이다. 결국 히포크라테스 전통을 포함한 그리스 의학의 특징은 그리스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1. 의사의 사회적 위치

그리스인들은 일찍부터 의료직을 중시하고 있었다. 사회적 분업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왕조차 직접 농사를 짓던⁹⁾ 호메로스 시대부터 예언자, 가수, 목수들과 함께 의사는 전문가로 간주되었는데,¹⁰⁾ 특히 전쟁기에 의사는 '여러 명의 戰士에 해당되는 가치'¹¹⁾를 지닌 사람이었다. 「일리아

7) I.M. Lonie, "Hippocrates the Iatromechnist," *Medical History* 25(1981), p.121.

8) W.H.S. Jones, "Introduction," *The Medical Writings of Anonymus Londinensis* (Cambridge, 1947), p.20.

9) 「오딧세이아」XVIII. 336-375.

10) 같은 글, XVII. 384-385. Glotz는 이들 외에도 傳令, 대장장이, 가죽세공인, 陶器工 등의 전문기능직들을 더 추가하고 있다. G. Glotz, *Ancient Greece at Work*, trans. M.R. Dobie (London, 1926), pp.24-26.

11) 「일리아스」XI. 514.

스」에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아들인 마카이온과 포달레이리오스가 의료활동을 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醫神의 혈통을 이어받은 이들은 다른 영웅들과 동일한 신분이었으며, 따라서 이들은—동양사회의 儒醫와 유사한—귀족출신의 시술가였다. 호메로스가 'ἰητρός'로 표현할 때 대부분은 이런 상류층 의사를 지칭하는 것이다. 반면 「오딧세이아」에는 활 만드는 사람 등 다른 수공업자들과 함께 어느 곳에서나 환영받는 전문기능인, 혹은 匠人으로서의 의사가 묘사되어 있는데, 이 경우 호메로스는 δημιοεργόι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¹²⁾ 이같은 용례의 구분과 함께 호메로스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의사의 수급과 연관된 것이다. 「오딧세이아」에 지적된 의사에 대한 환영은 그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모자랐으며, 따라서 의사의 순회진료가 통상적인 관례였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순회진료와 그에 수반된 제반 상황은 *Corpus*에도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 醫療地誌의 고전이라 일컬어 지는 「공기, 물, 장소들에 관하여」는 의술을 제대로 시행하려는 사람은 지역마다 다른 계절의 변화와 바람의 종류, 그리고 水質을 알아야 하며, 새로운 곳에 도착하는 즉시 바람과 해 뜨는 방향 등을 고려하여 그 장소의 지형적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¹³⁾ 그밖에도 토양과 주민들의 기질과 생활 습성을 각기 고려하여야 하며 특이한 풍토병에도 무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¹⁴⁾ 풍토병의 증상 기록은 「유행병」 I, III권에서도 상당히 중시되고 있다. 고전기 그리스에서—소피스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의사들의 순회방문이 통상적인 진료형태로 정착함에 따라, 이 '순회자들(περιοδευταί)'이 처음 방문하는 지역에 도착해서 유념할 점과 특정지역의 풍토병들을 미리 파악케 하기 위해 이런 의서들이 씌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⁵⁾

순회진료는 고전기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의료활동의 제반 규정들을 다룬 「법률」의 저자는 여러가지 의학 지식의 종류와 범위를 열거한 뒤 이것들이 폴리스를 순회하면서 의사로서의 명성을 획득하기에 앞서 마땅히 습득해야 할 내용들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¹⁶⁾ 또 「예절에 관하여」의 저자는 의사가 갖추어 여러 기구와 장비들을 나열하고 나서 '여행자(ἀποδημία; 일부 사본에는 επιδημία)'로서 휴대하기 좋은, 보다 간편한 장비가방을 준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¹⁷⁾ 이상의 후기 의서들 뿐만 아니라 많은 碑文 증거들도 순회진료가 헬레니즘기에도 통상적인 진료형태로 존속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 고대의 전기간에 걸친 이 순회진료는—앞으로 살펴보겠지만—그리스 의학의 여러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¹⁸⁾

12) 「오딧세이아」XVII. 383 이하. 이 두 용어의 사용에서 호메로스는 각각의 用例를 의식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호메로스 시대에 '엘리트' 의사와 장인 의사가 공존했다는 주장은 크게 무리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귀족혈통의 의사와 장인계급의 의사가 처음부터 구분되어 있었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존했던 것 같은데, Pleket은 로마제국 시대의 그리스 폴리스에도 이 두 유형의 의사가 존재했음을 입증하고 있다. H.W. Pleket, "Arts en maatschappij in het oude Griekenland. De sociale status van de arts." *Tijdschrift voor Geschiedenis* 96(1983), 325-347. H.F.J. Horstmanhoff, "The Ancient Physician: Craftman or Scientist?" *Journal of the History of Medicine* 45(1990), p.188을 참조할 것.

13) 「공기, 물, 장소들에 관하여」 I 장 (Loeb판 *Hippocrates*, eds. & trans. W.H.S. Jones, E.T. Withington & P. Potter, 6 vols., London, 1923-1988, vol. I. p.70).

14) 같은 글, II 장 (같은 책, p.72).

15) Jones, "Introduction," in *Hippocrates*, vol. I (Loeb판), p.143, 주1).

16) 「법률」 IV 장 (Loeb판 *Hippocrates*, vol. II, p.264).

17) 「예절에 관하여」 VIII 장 (Loeb판 *Hippocrates*, vol. II. p.297). 그러나 이 장비가방이 순회진료용이 아니라 왕진용이라고 볼 여지도 없지는 않다.

18) Cohn-Haft, 앞의 책, pp. 46-47. 한편 Robert는 로마제국 지배 이후에도 그리스에서는 의사들의 순회진료가 계속되었음을 밝혀 내었다. L. Robert, "Notes épigraphiques," *Revue Archéologique* 5. ser. 24 (1926),

고전기에 이르면서 의료기술의 전문화와 합리적 이론화가 두드러지지만,¹⁹⁾ 의사의 신분과 의료에 대한 사회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다. 고전기 그리스에서 匠人의사의 사회적 신분은 데모스 구성원과 크게 구분되지 않았지만, 다만 순회진료의 특성 때문에 많은 의사들은 소피스트들이나 예술가들처럼 해당 폴리스에서 居留外人(μέτοικος)의 신분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²⁰⁾ 호메로스가 사용한 *δημιοεργός*—혹은 그 복수형인 *δημιοεργοί*---는 고전기의 *δημιουργός*와 같은 용어인데, 후자는 '기능인', 혹은 '수공업자'를 의미한다. 아울러 이 용어에는 아마추어와 구분되는 전문기능인이란 의미가 함축되어 있으며, Cohn-Haft의 지적에 따르면 가내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생산자들과는 달리 전시민의 수요를 대상으로 활동한 사람을 의미한다.²¹⁾ 물론 이들은 토지소유에 바탕한 상층 엘리트 집단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무산빈민층, 즉 테테스 계층보다는 상위의 노동계층이었다. 테테스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일용노동자라는 의미였다면, *δημιουργός*는 전문성과 재산을 갖춘 수공업자를 의미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토지를 기반으로 한 고대 지중해 사회의 계급구조에서 불안정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인, 기업가, 선주, 금융업자들과 함께 그리스 사회에 활력을 공급한 집단에 속하며, 기능분화되지 않은 사회에서 유일하게 '전문화된' 중간계급이었던 것이다.²²⁾

*Corpus*는 이같은 匠人의사들이 수행한 진료의 실제 모습을 재현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 특히 「의사에 관하여」와 「진료소에 대하여」에는 가게 진열장의 장식 및 고객 접대요령과 유사한 세심한 지시들까지 담겨져 있다.²³⁾ 의사가 새 장소에 도착하여 충분한 일거리가 있다고 판단하면 아고라 광장같은 목 좋은 곳의 가게나 집을 임대하여 개업하는데, 그의 진료소(*ιατρείον*)는 근대의 병원보다는 차라리 장터의 노점과 유사한 것이었다.²⁴⁾ 진료소의 마련은 위치선정에서부터 세심한 주의를 요구하였다. 우선 진료소는 다른 匠人들의 가게와 마찬가지로 접근하기 용이해야 하며—아마도 길목에서 바로 들어 올 수 있게—동시에 외풍이 너무 세거나 햇빛이 강하게 들지 않아야 한다. 너무 밝은 것은 의사에게는 무관하지만 환자에게 좋지 않다는 것이다.²⁵⁾ 의사는 대개 낮에 일했지만 밤중의 위급한 환자때문에 인공조명이 필요했는데, 직접 조명으로 밝은 쪽이 환자에게 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되어 있다.²⁶⁾ 또 진료소에는 환자가 마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깨끗한 물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사와 그의 조수는 '여행용 가방'에서 칼 등의 외과기구와 미리 준비한 약품들, 즉 '용도에 따라 분류된 통증완화제'와 '產地에서 채취하여 상용한 방법으로 준비된' 설사용 下劑와 물약을 꺼내 놓고 그밖의 필요한 시설과 품목들을 마련하였다.²⁷⁾ 의자는 같은 높이의 것들을 준비하여 환자와 의사가 같은 위치에서 마주보도록 해야 하며, 눈 등을 닦아내고 상처를 깨끗이 싸맬 붕대용 천과 스폰지도 준비되어야

173-187.

19) Phillips는 헤시오도스 및 소크라테스 이전 자연철학자들이 활약했던 시기부터 *Corpus*가 이오니아의 산문체로 씌여지기 시작한 전5세기 사이에 의료전문직이 발전했다고 보고 있다. E.D. Phillips, *Aspects of Greek Medicine* (Philadelphia, 1987), p.28.

20) H.E. Sigerist, *A History of Medicine*, vol. II (Oxford Univ. Press, 1961), p.223.

21) Cohn-Haft, 앞의 책, p.12.

22) M.I. Finley, *The World of Odysseus* (New York, 1988), pp.37, 55-56.

23) Sigerist, 앞의 책, p.307.

24) Edelstein, "The Hippocratic Physician," *Ancient Medicine* (Baltimore, 1967), p.87.

25) 「의사에 관하여」(Littré판, IX. 206 이하).

26) 「진료소에 대하여」 III장 (Loeb판 *Hippocrates*, vol. III, pp.58-60).

27) 「예절에 관하여」 VIII장 (Loeb판 *Hippocrates*, vol. II, pp.290-292).

하며, 기구들도 사용하기 용이한 곳에 적절히 비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 살펴보았듯이 진료소의 제반시설을 마련하고, 나아가 약을 조제하고 수술을 하는 등 직접적인 手作業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 의사들은 그리스인의 기준으로는 수공업자였음이 분명하며, 더욱이 순회진료의 특성은 의사를 일용 노동자로 간주케 하였는데,²⁸⁾ 이같은 상황은 환자를 대하는 의사의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낯선 의사가 충분히 신뢰가치 않아서 여러모로 시험하려 하였고, 의사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환자의 신뢰를 얻어내려는 의사들의 노력은 의료 外의 여러 측면의 행태에도 반영되기 마련이었으며, 이 역시 그리스 의료의 특이한 전개과정에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²⁹⁾

고전기 그리스 의사들의 사회적 신분이란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보다 직접적인 정보의 출처는 플라톤이다. 『법률』 720a-e에서 그는 자유민 의사는 자유민을, 노예 신분의 의사는 노예를 치료한다고 말하고 있다. 고대세계 전체를 통해 볼 때 의료업에 종사한 사람 중에 노예 출신, 혹은 노예 신분이 있었음은 분명하며,³⁰⁾ *Corpus*의 저술가들이 모두 자유민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플라톤의 이 구절로부터 두가지 신분의 의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신분에 따라 담당환자도 구분되었다고 단정하는 것 역시 무리이다. 왜냐하면 한사람의 의사가 남긴 임상기록인 『유행병』 III권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 시민과 노예, 그리고 외국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과 신분의 환자들이 함께 다루어져 있기 때문이다.³¹⁾

노예 신분 의사의 존재 가능성은 두가지이다. 첫번째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 신분을 감추고 노예가 되었다가 나중에 다리우스를 치료하여 명성을 얻은 데모키데스처럼 원래 의사로서 훈련받았던 사람이 전쟁 등을 통해 노예 신분이 된 경우인데, 데모키데스를 제외하면 그런 예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두번째는 노예가 훈련을 받고 의사가 된 경우로, 초기의 로마 의사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되고³²⁾ 그리스 의사중에도 적지 않았으리라는 추측은 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에 대한 기록 역시 거의 없다. 碑文 증거중 유일한 것은 전155년에 제작된 델포이의 노예 해방 기록인데,³³⁾ 이 기록으로부터 연구자들은 노예 신분의 의사는 자신의 주인인 의사를 보조했을 뿐, 독자적인 시술을 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³⁴⁾ 반대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같은 결론은 고전기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다면 자유민은 자유민 출신 의사가, 노예는 노예 출신 의사가 돌보라는 플라톤의 기록은 실제상황의 묘사이기보다는 권장사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해방노예는 居留外人의 신분이었으므로,³⁵⁾ 그리스에는 사실상 노예 신분의 의사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신분적 측면에서 그리스 의사는 자유민이었고 대

28) Edelstein, "The Distinctive Hellenism of Greek Medicine," *Ancient Medicine*, p.385.

29) 줄고, "그리스 의료윤리의 이상과 실천," 『醫史學』 제4권제2호(1995. 12), p.127 이하.

30) O. Temkin, "Greek Medicine as Science and Craft," *Isis* 44(1953), pp.214-215에는 이에 관련된 문헌증거들이 검토되어 있다.

31) Jones, "Introduction," in *Hippocrates*, vol. I (Loeb판), p.143.

32) Cohn-Haft, 앞의 책, p.14, 주)18.

33) W. Dittenberger, *Sylloge Inscriptionum Graecarum*, 2nd ed. (Leipzig, 1889-1901), p. 857.

34) 이 노예가 자유를 얻기 위해 지불한 돈은 6미나로 같은 기록에 나타난 통상적인 대가의 2배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독자적인 시술을 할 수 있는 의사의 몸값으로는 너무 적다. 또 이 노예의 원 소유자인 아산드로스의 아들들인 디오니시오스와 폴리타스 형제는 둘다 의사였다. Cohn-Haft, 앞의 책, p.21, 주)58을 참조할 것.

35) Sigerist, 앞의 책, p.226.

개는 자유민인 조수——자신의 제자이기도 한——를 거느렸지만, 간혹 드물게 노예 신분의 조수도 있었다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또 조수의 숫자는 의사마다 다르며, 특히 公醫인 경우에는 여러 명의 조수를 거느렸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³⁶⁾

조수의 신분 및 숫자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조수들이 독자적으로 조치할 수 있었던가 아니면 의사의 심부름만 했는가 하는 것인데, 이는 의사로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에서 조수, 혹은 徒弟의 과정이 필수적이었던가 하는 문제이며, 결국은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정의 기준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문제로 연결되는 질문이다. *Corpus*에는 조수의 존재와 역할을 말해주는 구절들이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 그 내용은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환자 곁에 의사의 지시를 제대로 수행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도제중 하나(ὁ ἐφεστώς)를 남겨두라는 권고로,³⁷⁾ 이는 환자가 잘못되면 모든 비난이 의사에게 돌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³⁸⁾

2. 의사의 교육; 합리적 의학전통의 시작

그리스 의사들의 수련과정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의학지식은 누구나 갖추어야 할 소양교육의 일부였고, 일부 지식인들은 플라톤과 투키디데스의 경우처럼 의학적 주제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논의를 할 수 있었다.³⁹⁾ 또 의사를 포함한 고대의 많은 지식인들이 의술의 유용성을 강조하였다. 의술이 발명되지 않았더라면 인류는 생존을 위한 투쟁에서 살아남지 못했다고 *Corpus*의 한 저자는 공언하였고,⁴⁰⁾ 풀루타르코스는 의술이 기하학, 변증법, 음악보다 훨씬 중요하며⁴¹⁾ 다른 어떤 학에 못지않게 세련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⁴²⁾ 또 갈레노스는 의술이 ‘모든 기예중 최상의 것’임을 논증하는 글을 남겼다.⁴³⁾ 이같은 논의들은 역으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지식인들 못지않은 소양교육이 필요했음을 짐작케 한다.⁴⁴⁾ 그러나 원칙적으로 의사는 匠人

36) Vercoutre는 公醫가 공동소유의 노예 여러 명을 조수로 거느렸다고 주장하지만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A. Vercoutre, “La médecine publique dans l’antiquité grecque,” *Revue Archéologique* 39 (1880), 236-312. 그러나 아리스토파네스의 「아르카니아인들」 1032행(προς τοὺς Πιττάλον)에 의하면, 公醫로 추측되는 피탈로스가 여러 명의 조수를 거느렸음을 알 수 있다. Cohn-Haft, 앞의 책, p.15, 주) 24를 참조할 것. 여하튼 그리스 의사들이 도제 성격의 조수를 거느렸다는 주장은 다른 전문기능인의 경우와 비교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외과수술시에 의사는 조수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이며, 간호원이 독립된 전문직업이 아니었던 상황속에서 환자의 간호를 위해서도 조수가 필요했을 것이다.

37) 「예절에 관하여」 XVII장 (Loeb판 *Hippocrates*, vol. II, p.299).

38) 같은 글, XIV장 (같은 책, p.297).

39) liberat art로서의 의학교육에 대해서는 W. Jaeger, *Paideia*, vol. III (Oxford Univ. Press, 1944)의 1장 “Greek Medicine as Paideia”를 참조할 수 있다. Jaeger는 “그리스인들의 일상생활에서 의학은 주도적인 문화적 힘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같은 책, p.3)

40) 「고대의학에 관하여」 III장 (Loeb판 *Hippocrates*, vol. I, pp.16-18).

41) Plutarchos, *De sanitate tuenda*, 122c

42) 같은 글, 122e.

43) Galenos, *Protrepticus*. Edelstein, “The Distinctive Hellenism of Greek Medicine,” *Ancient Medicine*, p.386을 참조할 것.

44) 그러나 의술은 인간성의 완성을 위한 교육에 필수적인 7학예에 속하지는 못하였다. 기원 후 5세기의 Martianus Capella에 의해 *trivium*과 *quadrivium*으로 이루어진 7학예가 규정될 때 의학은 너무 실체적이고 구체적이므로 인성 및 교양교육에는 적합치않다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계급에 속하였고, 의료활동은 기예, 즉 τέχνη 중의 하나로 분류되었으며,⁴⁵⁾ 따라서 의술의 수련은 徒弟制度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해야 할 지도 모른다.

Temkin은 이같이 상반되는 두가지 수련과정을 한데 묶어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⁴⁶⁾ 우선 그는 그리스의 의료종사자들을 ‘돌팔이(mere leech)’와 진정한 ‘의사(physician)’로 나누어,⁴⁷⁾ 전자는 개업의 밑에서 전래의 도제제도를 통해 훈련받은 사람으로,⁴⁸⁾ 후자는 이론을 갖춘 참다운 자연연구자(student of nature)로 규정하고 있다. 후자 역시 임상훈련을 받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취향이나 스승의 배려, 혹은 조직화된 어떤 학파와의 연계를 통해 의학이론에 대한 체계적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다.⁴⁹⁾ Temkin의 이같은 구분은 의학이 가진 ‘기술’의 측면과 함께 ‘과학’의 측면을 지적해 주며, 뿐만 아니라 전5세기에 그리스 의학이 맞이한 새로운 국면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즉 히포크라테스 및 코스 학파의 대두를 체계적 교육을 통한 의사들의 등장과 관련시켜 이해할 수 있으며, 나아가 Corpus의 저술과 수집을 이들의 교육과 연관하여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서 보류해 두었던, 조수의 역할에 관한 문제를 의사의 교육과 연관지워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코스의 의학학과, 혹은 학교같은 집단의 가입자는 당연히 자유민이었을 것이다. 물론 개업의의 도제 중에는 노예 신분의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노예 신분으로 독자적인 의료활동을 할 수 없었다면, 그는 사실상 도제이기보다는 조수—일종의 간호사 역할을 담당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자유민 신분의 도제는 상당기간은 노예 신분의 조수와 같은 일을 하지만, 어느 단계서부터는 스스로 조치를 할 수 있었고, 이어서 독자적인 開業을 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⁵⁰⁾

의사의 교육과 관련된 이상의 概觀은 시술자가 능력있는 의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련과정이 필요했고, 특히 고전기에 접어들면서 체계적인 이론교육이 선호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의료에 대한 전5세기의 사회적 인식은 어떠하였던가? 手作業에 대한 고전기 그리스인들의 편견은 그것을 ‘직인에 어울리는 것(βαναυσικός)’이라 규정하고 자유민에게는 적합치 않다고 여러 곳에서 지적인 플라톤의 태도로 대표되는데, 기예를 시술하는 의사 역시 이 불명예스러운 범주에 속하지 않을 수 없다.⁵¹⁾ 그러나 의료직업은 다른 수공업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녔으며, 더욱이 그것은 그리스 의학의 특이한 발전방향에 의해 강화되어 나갔다.⁵²⁾ 무엇보다 먼저 의술은 인간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다른 수작업과 구분되며, 따라서 고대 오리엔트에서부터 병고치는 사람—무술치료자, 혹은 司祭이던, 아니면 합리적인 시술을 하는 의사이던 간에—해당 사회내에서

45) 「고대의학에 관하여」에는 의사를 지칭하는 말로 드물게 ἱητρός가 사용되고, 보다 빈번하게는 χειροτέχνης, δημιουργός, 혹은 τεχνίτης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또 고대말에 이르면 의학을 지칭하는 말로 ἐπιστήμη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고전기의 용례로는 τέχνη 혹은 ἐμπειρία, 또는 ἔργον이 사용되었다. Cohn-Haft, 앞의 책, p.15, 주)26을 참조할 것.

46) Temkin, "Greek Medicine as Science and Craft," *Isis* 44(1953), 213-225.

47) 같은 글, p.215.

48) 같은 글, pp.218-219.

49) 같은 글, pp.220-221.

50) Cohn-Haft, 앞의 책, pp.15-17.

51) 수작업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편견은 다소 과장된 경향이 있다. 능력있는 장인들은 상당한 대우를 받았고 명예도 누렸다. 일례로 A. Wilhelm, *Neue Beiträge zur griechischen Inschriftenkunde*, 6.Teil (1921), pp.39-44에는 도예공들에 대한 그리스의 명예입법 규정들이 검토되고 있다.

52) 오리엔트와 구분되는 그리스 의학의 특징과 그같은 進展의 요인에 대해서는 Edelstein, "The Distinctive Hellenism of Greek Medicine," *Ancient Medicine*, pp.367-397을 참조할 수 있다.

지도층에 속해 왔으며, 어떤 ‘힘’을 지닌 존재로 간주되어 왔다. 환자들에 의해 어떤 ‘힘’을 인정받는다든 것은 환자의 치료에 필수적이었고, 따라서 갈레노스의 표현대로라면 유능한 의사는 왕이 자신의 臣民을 다스리듯이 자신의 환자를 지배한다는 것인데,⁵³⁾ 고전기 이후의 그리스 의학은 교육을 통해, 그리고 그 결과이자 의료교육 개혁의 배경인 理性에 대한 믿음을 통해 이같은 권위를 강화해 나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인들도 초기에는 질병의 기원을 神에게서 찾았다. 호메로스는 전염병은 신에 의한 것이라 생각했고,⁵⁴⁾ 헤시오도스 역시 제우스의 뜻에 의해 질병이 생긴다고 보았다.⁵⁵⁾ 이런 속에서 히포크라테스 의학은 그리스 자연철학과 함께 전5세기의 계몽운동에 참여하였다. 예를 들어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이 투쟁해야 했던 중요한 싸움중의 하나는 질병이 자연현상, 즉 자연적 원인의 결과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것이었다. 특히 *Corpus*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신성병에 관하여」는 미신적인 믿음에 대한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의 논박에 대한 좋은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⁵⁶⁾ “내가 보기에는 ‘신성병’이 다른 어떤 질병보다 더 성스러운 기원을 갖지 않고 자연적 원인을 갖는데, 성스러운 기원에 대한 가정은 사람들의 무경험과 그것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경악 때문이다.”⁵⁷⁾ 이 의서의 저자는 그 질병을 신성하다고 생각한 처음 사람들을 자신과 동시대의 마술사(μάγοι), 淨化儀式者(λαθάρται), 돌팔이(ἀγούρται), 사이비 의사(ἀγαζόνες)에 비교하고 있다.⁵⁸⁾ 우선 그들은 부정직하기 때문에 비난받을 만한데 그 질병, 즉 간질을 신성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지를 은폐하는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들의 처방은 주문의 사용과 특정한 음식 및 의복착용의 금지를 포함하는데, 만일 이로써 환자가 회복되면 그것은 자신들의 功績이고, 반면 환자가 죽으면 신의 탓이라는 핑계를 댄다는 것이다.⁵⁹⁾ 여기서 저자의 논박이 신성한 힘의 존재에 대한 부정과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저자의 이어지는 논지는 그 질병이 신성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淨化의식과 주문 같은 순위를 방법으로 그것을 치료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모순이며, 나아가 신들이 한 인간의 신체를 부정케 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은 명확히 불경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⁶⁰⁾ 「신성병에 관하여」의 저자는 이 질병의 종교적 요인, 즉 θεῶντι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⁶¹⁾ 그것을 병자하여 치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는 사이비 의사들을 논박하고 있는 것이다.

히포크라테스 의학은 그리스적 사유의 독특성, 혹은 천재성(Greek genius)이 이룩한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로 꼽힌다. 의료행위를 하고 있던 사람들의 훈련, 관심, 그리고 전체적인 생활방식은 여러 측면에서 자연철학자들과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5, 4세기의 의사들은 전6, 5세기의 우주론자들의 업적과 필적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내었다.⁶²⁾ 소크라테스 이전 자연철학자들이 신화적 설명을 벗어나 합리적 宇宙創生論을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은 종교

53) Galenos, *De simplicium medicamentorum temperamentis ac facultatibus*, X.22, vol.XII (Kühn판), p.299.

Edelstein, 같은 글, p.397, 주)43을 참조할 것.

54) 「일리아스」 I. 8-10.

55) Hesiodos, 「노동과 나날」 103-105.

56) G.E.R. Lloyd, *Early Greek Science: Thales to Aristotle* (New York, 1970), p.54.

57) 「신성병에 관하여」 I 장 (Loeb판 *Hippocrates*, vol. II, p.138).

58) 같은 글, II 장 (같은 책, p.140).

59) 같은 글, II 장 (같은 책, pp.140-144).

60) Lloyd, 앞의 책, p.54.

61) Sigerist, 앞의 책, p.298.

62) Lloyd, 앞의 책, pp.53-54.

적, 마술적 치유방법을 벗어나 '합리적' 의학전통을 세울 수 있었다. 암흑시대 이전의 그리스 사회의 상황은 어떠했건 간에 호메로스가 등장한 시기에 이르면 의사는 이미 '공공의 복리를 위한 일꾼'중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었다.⁶³⁾ 의사는 그 자신만이 보유한 독특한 지식의 대변인이었고, 따라서 그 자신의 것이 아닌 지식을 혼입하거나 보유한 것처럼 꾸밀 필요도 없었다. 소포클레스는 "절개함으로써 치료될 수 있는 상처를 놓고 주문을 외우는 사람은 학식있는 의사가 아니다"고 단언하였던 것이다.⁶⁴⁾

3. 神殿의술과 히포크라테스 의학

전5세기에 그리스 의학이 맞이한 새로운 국면의 특징으로 의료기술의 발전과 합리적 이론화,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수련과정의 변화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전문화가 외형적인 제도의 마련으로 연결되었는가 하는 문제는 의료의 사회적 통제와 관련되어 있다.⁶⁵⁾ 여하튼 히포크라테스와 함께 등장한 새로운 유형의 의사의 특징중 하나는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로, 이는 *Corpus*의 모든 필자들에 공통된 것이다. 그런데 *Corpus*에는 코스의 의사집단에서 유래한 저술뿐만 아니라 크니도스 등의 의사집단에서 유래한 저술이 함께 모아져 있는데, 그렇다면 '히포크라테스 의학', 혹은 '히포크라테스 의사'라는 표현은 코스 및 크니도스의 의사 모두를 포함하는 용례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이 표현들은 '합리적' 혹은 '과학적'인 의학전통과 관련하여 사용되어 왔던 것인데, 이상과 같이 정의된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특징은 '신전의술'과의 대비를 통해 보다 뚜렷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의 신전치료 전통은 아폴론의 아들로 의학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에 대한 숭배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⁶⁶⁾ 초기에는 치료를 담당한 신들이 여럿 있었으나 전5세기부터 아스클레피오스는 그중 단연 두각을 나타내면서⁶⁷⁾ 다른 醫神들의 기능을 통합하였고, 그에 따라 전420년 경에는 아스클레피오스 祭儀가 아테나이에도 도입 되었다.⁶⁸⁾ 나아가 헬레니즘기의 아테나이에서는 아스클레피오스가 아테나이 여신을 오히려 능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했으며,⁶⁹⁾ 이 기간동안 이카로

63) 『오딧세이아』 XVII. 382-385.

64) Sophocles, 『이악스』 581 이하.

65) 이 문제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제Ⅱ장 3절인 "의료의 사회적 통제"와 4절인 "公醫制度"의 주제이다.

66) 아스클레피오스 祭儀에 대한 文獻研究로는 아직도 E.J. Edelstein & L. Edelstein, *Asclepius*, 2 vols. (Johns Hopkins Press, 1945)를 꼽을 수 있는데 I 권은 고대사료를 모은 것이고, II 권은 Ludwig Edelstein이 혼자 쓴 해석이다. 이에 앞선 신전의술 전반에 대한 고전적 연구서들로는 다음과 같은 책들이 있다. W.A. Jayne, *The Healing Gods of Ancient Civilizations* (Yale Univ. Press, 1925); M. Hamilton, *Incubation* (London, 1906); R. Herzog, *Die Wunderheilungen von Epidauros* (Leipzig, 1931); S. Herrlich, *Antike Wunderkuren. Beiträge zu ihrer Beurteilung* (Berlin, 1911); F. Kutsch, *Attische Heilgötter und Heilheroen* (Giessen, 1913).

67) Edelstein, 같은 책, vol. II, pp.242-255, 특히 p.243.

68) Kutsch, 앞의 책, pp.16-25.

69) 헬레니즘기 아테나이에서의 아스클레피오스 祭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W.K. Pritchett & B.D. Meritt, *Chronology of Hellenistic Athens* (Harvard Univ. Press, 1940)를 참고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연대기록부터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司祭名을 따르고 있다. 이같은 연구결과 일찍이 아스클레피오스 제의가 아테나이에서 별반 중요치 않았다고 한 Girard의 주장 자체가 별반 중요치 않게 되었다. P. Girard, *L'Asclépieion d'Athènes* (Paris, 1881). Cohn-Haft, 앞의 책, p.27, 주)90을 참조할 것.

스의 테르미스 숭배자들(Thermaioi)은 자신들을 Asklepíeis라고 바꾸어 부르는 일도 생겨났던 것이다.⁷⁰⁾

아스클레피오스 祭儀의 확산은 그리스인들의 건강에 대한 염원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에 바탕한 것이지만, 일단의 의료종사자들의 집단적 이해와도 무관하지 않았다. 인간의 운명 및 자연에 대한 경이감이 지배하던 고대세계에서 그리스 의사들이 자신들 직업의 수호신으로 아스클레피오스를 숭배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이같은 개업의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증거는 젊은 여자 환자를 진찰하는 의사를 지켜보는 아스클레피오스의 모습을 새긴 보석반지이다.⁷¹⁾ 또 전3세기의 증거로는 자신의 친구이며 의사인 밀레토스사람 니키아스에 대한 테오크리토스의 경구(epigram)를 들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니키아스가 집안에서 아스클레피오스 제의를 행했음을 알 수 있다.⁷²⁾ 물론 아스클레피오스에 대한 믿음이 환자에 대한 의사의 직업적 책임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이같은 구분은 환자들의 입장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 병들었을 때 알렉산드로스가 먼저 찾은 것은 코스 출신의 의사였지만, 완치되었을 때 그는 醫神인 아스클레피오스에게 회복에 대한 감사의 제물을 바쳤던 것이다.⁷³⁾

그렇다면 아스클레피오스 神殿(Asklepieion)에서는 어떤 치료가 행해졌던 것인가? 아마도 自己暗示, 최면, 夢遊상태 같은 심리치료가 위주가 되었지만, 일반적인 치료방법 역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Edelstein의 논의는 이 문제와 관련된 고전적 해석이라 할 만한데,⁷⁴⁾ 그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도 통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루어졌음이 인정되지만, 그 시술 방법은 상당히 종교적 형태를 띠었다고 보고 있다. 약을 투여하더라도 呪術적 주문이 수반되었으며 무엇보다 병치료는 전적으로 신의 소관이라는 입장이 전제되어 있었다는 것이다.⁷⁵⁾ 크게 어긋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같은 해석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 좀 더 세분화 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전의술의 구체적인 시술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들은 에피다우로스에서 발견되었다. 아스클레피오스의 출생지는 테살로니아 지방의 트리카로 알려져 있지만, 숭배자들이 남쪽으로 이주함에 따라 아르카디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착한 제의의 중심지는 에피다우로스였던 것이다. 그밖에도 아스클레피오스의 어머니인 코로니스와 외할아버지가 이 곳 출신이라는 전승이 있는 만큼 에피다우로스는 고전기 이전에는 아스클레피오스 제의의 중심지였으며, 그리스에서 가장 큰 아스클레피

70) 전205년의 것으로 추산되는 한 비문기록 [W. Kittenberger, *Sylloge Inscriptionum Graecarum*, 3rd. ed. (Leipzig, 1915-1924), 562]에 asklepíeis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L. Robert, "Les Asklepíeis de l'Archipel," *Revue des Etudes grecques* 46(1933), 423-442을 참조할 것. 특히 pp.431-432에는 이카로스의 Thermaioi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바꾸게 된 역사적 배경이 설명되어 있다.

71) 이 반지는 British Museum에 소장되어 있으며, Phillips의 책에 그 사진이 수록되어 있다. Phillips, 앞의 책, Plate No.10을 참조할 것.

72) Theocritos, *Epigram* VII. 이警句는 의사들 역시 신의 존재와 능력을 믿었고, 특히 醫神인 아스클레피오스가 의사들의 친구이자 동반자이기 때문에 그를 숭배했다고 말하고 있다. Sherwin-White, 앞의 책, p.278을 참조할 것.

73) Arrianus, *Anabasis* II장과 IV장 7-11절. 이 기록에 따르면 알렉산드로스가 타르소스에서 열병이 걸렸을 때 의사인 필리포스가 치료했고, 이를 기념하여 술리에서 아스클레피오스를 기리는 경기를 개최하였다. 한편 이에 대조가 되는 구절은 *Anabasis* VII장 14절인데, 친구인 헤파이스티온이 죽었을 때 알렉산드로스는 아스클레피오스를 저주했던 것이다.

74) Edelstein, *Asclepius*, vol. II, Chap.3, "Temple Medicine".

75) 같은 책, p.154 이하 여러 곳. 특히 p.161에서 Edelstein은 "의사이든 사제이든 인간의 간섭을 전제한 어떤 이론도 입증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스 신전이 있던 곳이기도 하다. 한동안 연구자들은 코스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을 중시했지만 코스의 신전은 전4세기, 즉 히포크라테스 등장 이후에 건립되었으며 코스 의사들이 활동한 중심 무대도 아니었다는 Herzog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고전기 이후에도 아스클레피오스 제의의 중심지는 여전히 에피다우로스였다고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⁷⁶⁾ 하지만 에피다우로스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는 종교적 치료가 시행된 반면, 코스의 신전에서는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의 관할하에 합리적 치료가 행해졌다는 Herzog의 주장⁷⁷⁾은 너무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다. 신전의술의 처방이 각 신전마다 달랐다는 것은 개연성이 있는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었다고 생각되며, 지역적 차이보다는 오히려 시간에 따른 차이가 컸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⁷⁸⁾ 헬레니즘기까지의 신전의술에 대한 기록들은 전적으로 종교적, 신비적이었던 반면, 로마제국시대 이후의 기록들에는 합리적인 시술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으며,⁷⁹⁾ 따라서 에피다우로스의 신전치료 기록인 iamata와 기원 후 2세기의 아리스티데스가 쓴 *Hieroi Logoi*를 비교해 보면 “기원 후 100년경의 신전의술에 미친 과학의 영향을 알 수 있다”는 Ilberg의 주장⁸⁰⁾이 타당함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에피다우로스의 iamata는 돌에 새겨 柱廊의 벽에 설치된 형태로 발견되었는데, 헬레니즘기의 것이다. 여기에는 43개로 분류되는 일련의 치료사례들이 기술되어 있는데, 있음직한 경우와 전혀 믿기 어려운 경우들이 혼재되어 있다.⁸¹⁾ 꿈에 아스클레피오스가 등장함으로써 신약성경의 기록들과 유사한 치유들이 이루어지는데, 구약시대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다른 사람의 문둥병을 옮겨 탐욕스런 자신의 하인을 벌준 것⁸²⁾과 유사한 사례——치유를 감사하지 않은 환자의 피부병이 재발하고 다른 사람의 병까지 얻게끔 아스클레피오스가 벌하는——도 있다. 한편 전혀 믿기 힘든 사례들은 주로 여성의 임신 및 출산과 연관되어 있다. 5년 동안 임신상태에 있던 여자가 신전에서 하루 자고 난 뒤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는 혼자 샘에서 목욕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걸어간다. 또 不妊의 여자가 꿈에 나타난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딸을 약속받고 다른 부탁은 없느냐는 질문을 무시했다가 3년의 임신기간 후에 다시 와서 출산을 부탁하고 순산한다. 이들은 모두 신전 경계 밖에서 출산을 하는데, 생리적 현상에 대한 타부와 함께 후자의 사례에서 처럼 임신과 출산이 각각 별개의 청원대상이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때로는 환자의 이름도 빼놓은 채 간략히 기술된 때문이기도 하지만, iamata에는 치료행위가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다. 대부분은 꿈에 나타난 아스클레피오스가 구두로 치료를 약속할 뿐이며, 드물게 상처부위를 절개하고 약을 부었다는 기록이 있지만,⁸³⁾ 이 경우에도 약의 종류나 시술법은 거의 알 수 없다. 이는 기원 후 160년 경에 율리우스 아펠라스라는 사람이 신전에서 받은 치료에 대해 남긴 상세한 기록⁸⁴⁾이나 크레타의 레베나에 있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나온 전1세기의 碑文⁸⁵⁾의 자세한 묘사와 대조되는 사실이다.

76) Herzog, *Die Wunderheilungen von Epidauros* (Leipzig, 1931), p.139 이하.

77) Herzog, 같은 책, pp.148-149. Edelstein은 바로 이 주장을 인용하면서 Herzog를 비판하고 있다. Edelstein, 앞의 책, p.148, 주)11을 참조할 것.

78) Cohn-Haft, 앞의 책, p.28.

79) 이를 뒷받침할만한 자료들이 Edelstein, 앞의 책, vol. I: *Testimonia*, pp.392-454에 수록되어 있다.

80) J. Ilberg, “Rufus von Ephesos”, *Abhandlungen der Säch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hilosophisch-historische Klasse* 41.1. (Leipzig, 1930), p.32.

81) Phillips, 앞의 책, pp.197-201에 있는 “Appendix: The Cult of Asclepius”를 참조할 것.

82) 『열왕기하』 5장 20-27절.

83) Edelstein, 앞의 책, vol. I, *Testimonia* 40-41.

84) 같은 책, *Testimonium* 432.

그러나 에피다우로스의 iamata와 보다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기원 후 2 세기의 수사학자인 아일리우스 아리스티데스가 쓴 *Hieroi Logoi*이다. 그는 17년간 중병을 앓다가 에피다우로스, 코스와 함께 아스클레피오스 제의의 3대 중심지로 꼽히는 페르가몬의 신전에서 치료를 받은 뒤 이 글을 써서 아스클레피오스의 능력과 자비를 찬양하였다. 현존하는 것은 4권으로 된 비교적 짧은 것⁸⁶⁾인데 원래는 훨씬 길었다고 추정되며, 자신의 생애와 운명을 서술하는 자전적 성격이 강하다.⁸⁷⁾ 아리스티데스는 자신의 행적과 미래가 이미 아스클레피오스에 의해 예정되어 있다고 믿고, 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한다. 특히 그는 아스클레피오스가 명한 섭생법을 매시간 준행하는데, 생계에 대한 걱정이 없는 사람만이 따를 수 있는 규칙이다. 그러나 운동과 食餌法에 대한 이 철저한 규칙은 세속 의사들의 저술에서 볼 수 있는 여유있는 환자를 위한 조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⁸⁸⁾ 장기간의 단식과 정기적인 목욕, 때로는 일정기간 동안의 세척금지도 있는데 별로 놀라운 규정들은 아니다. 또 下劑를 사용하거나 瀉血을 하고, 여러 겹의 담요를 뒤집어 쓰고 땀흘리기도 하는데, 이 역시 세속의사들의 처방과 별반 다르지 않다. 심리기록과 신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기적 사건을 뺀 치료과정은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의 처방과 거의 구별되지 않는 것이다. 또 *Hieroi Logoi*에는 에피다우로스, 코스, 그리고 페르가몬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모습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목욕통과 도서실까지 갖춘 列柱回廊의 거대한 건물은 현대 병원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같은 *Hieroi Logoi*의 기록들은 로마제국시대의 신전치료가 이전과 상당히 다른 것임을 말하고 있다. 아울러 아리스티데스를 포함한 이 시대의 증언자들은 환자들이 신전치료와 세속의사를 통한 치료에 함께 의지했음을 말해 주고 있다.⁸⁹⁾ 이는 신전치료에 대한 이전의 자료에 세속의사의 개입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과 크게 대비되는 사실이며, 따라서 신전의술 및 합리적, 혹은 세속의술과의 관계는 헬레니즘기와 로마제국 시대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이다.

기원을 전후한 시점에서 신전치료가 합리적 의술을 수용했던 것이라면, 전5세기의 상황은 어떠하였던가? 다시 말해서 히포크라테스 등장 무렵의 신전의술과 합리적 의술은 어떤 관계를 지니는가? 전통적인 醫學史 서술은 암흑시대 이후 신전의술이 지배해 오던 그리스 의학이 전5세기에 히포크라테스가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의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히포크라테스를 합리적 의학전통의 창시자로 내세우는 이같은 역사서술은 이미 고대말에 확립되었고,⁹⁰⁾ 근대의 진보주의 역사관과도 부응하므로 별다른 저항없이 인정되어 왔던 것인데,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에 두드러진 과학의 영역에서 종교를 완전히 배제하려는 지적 분위기는 이같은 역사서술을 인준한 중요한 배경이었다. 그리스의 신전의술과 세속의술 사이의 관계에 대한 Herzog의 선구적인 연

85) 같은 책, Testimonia 439-441.

86) *Hieroi Logoi*의 현대판본으로는 *Aelius Aristides and the Sacred Tales*, trans. C.A. Behr (Amsterdam, 1968)이 있으며, 이중 일부 내용은 Edelstein, 앞의 책, Testimonia 408, 410, 411로 수록되어 있다.

87) Phillips, 앞의 책, p.198.

88) 같은 책, p.200.

89) Edelstein, 앞의 책, vol. I, Testimonia 401(갈레노스의 *Commentarius in Hippocratis Epidemias* 6.4. Sectio 4.8), 405(아일리우스의 *Fragmenta* 100), 417(아리스티데스의 *Oratio* 48. 31-35), 418(같은 글, 47.57). Cohn-Haft, p.29, 주)105를 참조할 것.

90) 히포크라테스가 신전의술로부터 합리적 치료술을 창출함으로써 세속의술의 침체는 전5세기에 끝났다는 식의 역사서술은 플리우니우스가 처음 명시하였는데, 그는 이것을 바로에게서 원용했다고 말하고 있다. Plinius, 「자연사」, 29.4. 이같은 언급에 바탕해 히포크라테스를 '의학의 아버지'로 부각시킨 사람이 바로 갈레노스였던 것이다.

구에도 이같은 계몽의식이 전제되어 있음은 차라리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Herzog의 입장은 앞서서도 이미 일부 살펴 보았지만, 그는 코스의 의사들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과 밀접한 연관을 맺어 오면서 사원의술을 합리적 시술로 바꾸었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주장의 주된 논거는 자신이 직접 지휘한 코스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발굴 결과로 신전치료에 대한 기록, 즉 iamata가 발견되지 않은 사실이다. 그는 이것이 소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의사들에 대한 법령들은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자료로 삼고 있다.⁹¹⁾ 그러나 이 법령들은 iamata가 애초부터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 못하며, 세속적 의술이 이곳에서 행해졌다는 증거는 더욱 아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법령뿐만 아니라, 聖法(leges sacrae), 헌납 명부 등 코스의 공공문서를 게시하던 장소중의 하나였고, 따라서 거기에서 의사들에 관한 법령들이 발견된 사실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다.⁹²⁾

코스의 신전에서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이 ‘합리적’ 의술을 베풀었다는 증거는 희박한 반면, 이곳에서 전통적인 신전치료가 시행되었다는 증거는 다양하다. 전1세기의 스트라본은 에피다우로스 등에 있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iamata에 대해 설명하면서 코스 신전의 iamata도 언급하고 있다.⁹³⁾ 코스의 신전 의술이 다른 곳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주된 근거인 스트라본의 이 증언은 부수적인 몇몇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VIII세의 치료에 대한 iamata는 현존하지 않지만, 이 신전에 전시되어 있던 이 기록의 내용을 말해주는 여러 문헌 기록들이 남아 있으며,⁹⁴⁾ 18세기의 프랑스 여행가인 Villosion의 보고는 이 때까지는 코스의 iamata가 보전되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⁹⁵⁾ 사실 코스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발굴물은 다른 곳과 비교하면 상당히 빈약한데, Sherwin-White는 빈번한 지진과 고대부터의 도굴, 그리고 성 요한 기사단이 성을 건축할 때 비문을 포함한 이 곳의 석조물을 대거 사용함에 따른 결과라고 보고 있다.⁹⁶⁾

따라서 코스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만 유독 합리적 의술이 행해졌다고 본 Herzog의 추론은 자의적이라 결론내리지 않을 수 없다. iamata의 부재 외에 그가 들고 있는 부수적인 증거는 의료기구들이 발견되었다는 것인데,⁹⁷⁾ 이 역시 합리적인 시술이 행해진 증거로서 보다는 아스클레피오스 신에 대한 개업의들의 숭배의 증거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⁹⁸⁾ 반면 의료기구들과 함께 발견된 작은 도기와 귀금속들은 이곳에서 전통적인 신전치료가 베풀어졌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스클레피오스 신에 의해 치료받았다고 생각하거나, 치료받기를 원하는 신체의 부분을 새겨 봉헌하는 것은 신전의술의 중요한 양상인데, 이곳에서도 많지는 않지만 그같은 관행이 행해졌

91) Herzog, *Arch. Anz.* (1903), pp.198-199.

92) Sherwin-White, 앞의 책, p.275.

93) Strabon, 「지리지」 374.

94) Plinius, 「자연사」 XX 24. 264; Galenos, *De antidotis*, XIV(Kühn판), p.201. Sherwin-White, 앞의 책, p.276, 주)108을 참조할 것.

95) “Mémoires” *Acad. Inser.* 47(1787), p.326 이하. Sherwin-White, 앞의 책, p.276, 주)109을 참조할 것.

96) Sherwin-White, 같은 책, p.36, pp.275-276.

97) Herzog, *Wunderheilungen*, p.148. 특히 주)15.

98) Cohn-Haft, 앞의 책, p.30, 주)117. 코스 의사들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후원자였다는 것은 가이우스 스테르티니우스 크세노폰이라는 의사의 경우를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그의 행적은 타키투스의 「연대기」 XII. 67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클라우디우스 치세동안 증축된 코스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回廊과 도서관에 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클라우디우스의 侍醫였던 그가 황제와 원로원의 재가를 얻어 코스의 면세권을 얻어내고 신전의 개축을 주도했던 것이다. Sherwin-White, 앞의 책, pp.283-284를 참조할 것.

음을 입증하기에는 충분한 분량의 봉헌제물이 발견되었던 것이다.⁹⁹⁾ 결국 코스의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에서 합리적 의술이 시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는 거의 없는 대신, 전통적인 신전의술의 여러 측면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다양한 것이다.

신전의술과 같은 비합리적인 의료행위가 히포크라테스의 등장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전쟁 등의 특정상황에서는 득세하기도 했다는 사실¹⁰⁰⁾은 그리스 의학의 전개과정을 일직선적인 진보로 파악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양자는 동일한 의료의 수요를 놓고 상호 경쟁한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사회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리스티데스처럼 예외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전의술은 주로 하층 및 불치환자의 의료적 욕구를, 세속의학은 비교적 상층의 의료수요를 만족시킨 것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¹⁰¹⁾ 기본적으로 무관한 양자의 관계 속에서 세속의사들이 포기한 환자들은 아스클레피오스의 초자연적인 치유를 기대하며 이 신전을 찾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양자는 어떤 경쟁이나 특별한 우호적 연관 없이 공존했으며,¹⁰²⁾ 따라서 실제의 진료과정에서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의 경쟁상대는 합리적 시술을 표방한 돌팔이들이었지 신전의술을 베푸는 神官들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히포크라테스가 등장하던 무렵의 그리스는 이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반종교적인 것은 결코 아니었다. 고전기 아테나이에서 전 시민의 참여하에 행해지던 悲劇祭만 해도 매우 종교적이었다.¹⁰³⁾ 이성과 종교가 그리스인들의 心性에서 공존할 수 있었듯이, 합리적 의학과 신전의술은 각기 다른 심성과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면서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그 기원, 혹은 이미 있던 것과 연결을 찾아 과거를 향하기도 해야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것의 前途를 찾아 미래를 향해서도 자리 매김을 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신전치료와 합리적인 의학전통 사이의 관계는 쉽게 단언하기 힘들다. 초기에 씌어진 의서들은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반면 고전기에 씌어진 중요 의서들의 몇몇 구절은 양자의 관계가 대립보다는 상호보완에 가까웠던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나쁜 꿈을 꾸 뒤 생긴 근심에 대해 「식이법에 관하여」의 저자는 “참으로 기도는 좋은 것이지만, 신들의 도움을 요청할 때 자신도 노력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¹⁰⁴⁾ 물론 이는 신전의술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은 아니다. 하지만 아스클레피오스의 신탁을 좇는 신전의술에 대한 직접적인 논박이 없다는 사실은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이 그들을 적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자신들의 기예, 즉 의술의 한계를 인

99) Sherwin-White, 같은 책, p.276.

100) 아리스토파네스의 「플루토스」는 눈먼 富의 신의 치료라는 주제로 신전의술을 조롱하고 있지만, 이는 역으로 신전의술에 대한 대중들의 몰두를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Longrigg는 전5세기 이후의 폴리스적 규범의 몰락이 신전의술의 광범위한 확산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테나이에서의 아스클레피오스 제의의 확산은 디오게네스 제의나 프리키아에서 유래한 키벨레 숭배, 트라키아 지방의 Bendis 숭배나 Sabazius 제의 같은 광란적 비밀의식에 빠지는 대중의 심리상태와 무관하지 않았으며, 이런 상황의 전개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발발과 함께 창궐한 대역병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투키디데스의 냉정한 묘사에 드러나 있듯이, 환자를 다루던 의사들이 제일 먼저 희생되어 속수무책인 상황은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의 치료를 남은 유일한 방책으로 생각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J. Longrigg, “The Great Plague of Athens,” *History of Science* 19(1980), p.216 이하를 참조할 것.

101) 같은 글, p.216.

102) Phillips, 앞의 책, p.197.

103) Sigerist, 앞의 책, p.298.

104) 「식이법에 관하여」 IV권, 87장.

정한 합리적 의사들은 신전치료의 능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그같은 인정은 신전치료가 제도적인 관행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 Edelstein은 그리스 의학의 특징을 규정하게 되는 몇가지 사회적 지적 요소중의 하나로 그리스에 사체계급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고 있는데,¹⁰⁵⁾ 이는—보다 큰 맥락에서는 그리스 과학발전의 배경이기도 하지만—신전의술에 대한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입장과 관련된 요소임에 틀림없다. 일정한 도그마를 준수하면서 직접, 간접으로 정치력을 행사하는 사체계급이 없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사회적 조직을 통한 행동과 사유의 억압이 없었기 때문에 그같은 관용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¹⁰⁶⁾ 근대 서구사회와는 달리 그리스에서는 합리성과 종교적 믿음이 적대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 다만 질병의 원인이나 치료수단이 이미 명백히 밝혀져 이성의 조명을 받는 영역에서 呪術은 의미가 없으며 거부되어야 한다는 것이 히포크라테스 의사들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전통에 주술적 치료가 끼어든 것이 아니듯이, 신전의술의 전통에 계몽적 의사들이 개입한 것도 아닌 채로 양자는 공존하였다. 다만 서양의학의 미래는 전자의 전통안에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4. 문화 속의 의료; 그리스의 健康觀

고전기 그리스인들에게 있어서 건강은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理想과 목표였다.¹⁰⁷⁾ “문화에 대한 그리스적 이상은 건강에 대한 이상이었다”는 Jaeger의 말¹⁰⁸⁾은 건강의 본질에 평등 및 조화의 개념이 깃든 한 정당한 것이다. 신체와 관련된 그리스인의 문화는 ‘인류에게 최상의 기준중의 하나, 즉 육신의 힘들 사이에 고귀하고 건강한 균형을 보전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던 것이다.¹⁰⁹⁾ 건강없이는 아름다움도 없다고 보며, 신체와 정신의 탁월함과 양자의 완벽한 조화를 목표로한 καλὸς καὶ ἀγαθός의 이상이 지배한 사회에서 당연히 건강은 소중한 것이었다. 반면 질병은 저주였으며 인간을 열등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따라서 환자는 자신의 사회적 위치를 되찾기 위해서도 질병으로부터 회복되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난치의 질환으로 가망없다고 판단되면 의사도 치료를 거부하였다. 건강의 회복, 나아가서는 완전한 육체의 보전이란 목표가 얻어질 수 없을 때 단순한 생명의 연장은 의미가 없었던 것이다.¹¹⁰⁾

105) Edelstein, "The Distinctive Hellenism of Greek Medicine," *Ancient Medicine*, pp.374-380.

106) 같은 글, p.377.

107) Sigerist, 앞의 책 p.299.

108) Jaeger, 앞의 책, p.45.

109) 같은 책, p.45.

110) 플라톤 「국가」Ⅲ. 408. 고전시대의 이같은 가치관은 헬레니즘 시대에 들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유일한 선은 덕이며 유일한 악은 사악함이고 따라서 건강과 질병은 부차적인 것, 즉 *adiaphora*로 간주되었다. 물론 *adiaphora*에도 등급을 매겨 건강은 바람직한 *adiaphora*이었고 질병은 회피되는 *adiaphora*였지만, 건강과 질병에 절대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일은 줄어 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헬레니즘기의 새로운 사상을 대변하는 중요한 사상가중 하나인 제논이 부러진 손가락 때문에 목매달았다는 사실은 육신의 건강과 완벽한 신체에 대한 전통적 가치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E. Zeller, *Die Philosophie der Griechen in ihrer geschichtlichen Entwicklung*, 5th ed. vol.Ⅲ (Leipzig, 1923), part 1 중 스토아 학파에 관한 항목을 참조할 것. 그렇다면 헬레니즘기에 일어난 의료류리상의 변화는 실천과 결과의 차원에서보다는 의도와 동기의 차원에서 규명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말할 수 있으며, 실제로 스토아 학파 및 피타고

카리토스 출신으로 전4세기 후반에 아테나이에서 활약한 디오클레스가 남긴 글은 그리스 의사들이 생각한 이상적인 하루 일과가 어떤 것이었는가를 잘 보여준다. 다음의 인용은 원래의 제법 긴 단편을 Sigerist가 축약한 것이다.¹¹¹⁾

건강의 수련은 기상과 함께 시작된다. 이때 이미 전날 먹은 음식이 위로부터 腸으로 옮겨져 있도록 습관이 되어야만 한다. 젊거나 중년인 자는 해뜨기 직전에 10스타디아를—그러나 여름에는 5스타디아만—걸어야 하고, 늙은이는 여름과 마찬가지로 겨울에도 5스타디아를 걷는다. 깨어난 후에는 즉시 일어나지 말고 잠의 빠근함과 마비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일어나서는 배개때문에 뻣뻣해 진 것을 없애기 위해 목과 머리를 살살히 문질러야 한다. 그리고는 기름을 약간 사용하여 전신을 문지른다. 일어나는 즉시 腸을 비우는 습관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배설 전에 이렇게 문지르고, 그렇지 않은 이는 배설 후, 그러나 딱 어떤 일도 하기 전에 문지른다. … 이후에 깨끗한 물을 사용해 얼굴과 눈을 매일 씻게 된다. 이빨을 튼튼케 하기 위해서는 樹脂를 써서, 그렇지 않으면 가는 박하 가루를 손가락에 묻혀 이빨의 안팎을 문질러 음식 찌꺼기를 씻어낸다. 코와 귀 안에 기름을 바르는데, 향기있는 기름이면 더 좋다. … 머리는 문지르고, 기름바르고, 씻고, 빗질하고, 깨끗이 造髮하는 등 많은 손질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매일 문지르고 머리에 기름발라야 하지만, 씻고 빗질하는 것은 가끔씩 해야 한다. … 그같은 아침 치장 후 일을 해야만 하거나 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렇게 해야겠지만, 여유있는 사람은 먼저 산보하도록 한다. 식사 전의 긴 산보는 신체를 비워서 음식을 받아들이게 준비시키고, 음식을 더 잘 소화할 힘을 준다. 식사 후의 적절하고 완만한 산보는 음식과, 음료와 신체내의 가스들을 섞어 준다. … 산보 후에 신체 관리를 다시 생각할 때까지는 앉아서 개인 용무를 보는 것이 좋다. 젊은이와 운동에 익숙하거나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은 체육관으로 가야 한다. 나이들어 약한 사람의 경우는 목욕탕이나 기름바를 만한 다른 따뜻한 장소로 가는 것이 낫다. 그 나이의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을 위한 운동장소가 있다면 적당히 문지르고 가볍게 운동하는 것으로 족하다. … 그같은 신체적 운동 후에는 점심을 먹는데, 여름에는 흰 보리가루와 향기나는 백포도주를 물과 꿀을 약간 넣어 잘 섞은 것을—아니면 배탈이 안 날 다른 죽을—먹는 것이 영양가 있고 소화하기 쉽다. 그같은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찬 빵을 먹는데, 거기에다 호박이나 오이같은 야채를 삶아서 간단히 조리한 것을 곁들일 수 있다. 갈증이 가실 때까지 백포도주와 물을 마실 수 있지만 식사 전에 목마를 때는 물을 많이, 그렇지 않을 때는 약간 마셔야 한다. 식사 후에 즉시 바람을 막은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가서 자야만 한다. 낮잠 후에는 개인 용무를 보거나 다시 산보하거나 체육관에 가거나 한다. 운동 후 먼지로 뒤덮인 때에는 건장한 젊은이는 찬물 목욕을 하는 것이 좋다. 반면 나이들고 약한 사람들은 기름을 발라 부드럽게 문지른 후에 더운 목욕을 하여야 한다. 공통의 준칙은 머리를 더운 물로 씻는 일

라스 학파가 고전기 그리스인들의 이상으로부터 기독교적 의료윤리로 넘어가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음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이 주제는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그리스 의사의 윤리규범을 다루면서 필자는 이미 그러한 변화의 일단을 논의하였다. 줄고, “그리스 의료윤리의 이상과 실천,” 『醫史學』 제4권 제2호(1995. 12), p.140을 참조할 것.

111) Sigerist, 앞의 책, pp.238-240.

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 신체가 비어서 소화된 해로운 음식 지꺼기가 없을 때 正餐을 들도록 한다. 여름에는 日沒 직전에 저녁을 들어야 하는데 빵, 야채, 보리떡을 먹는다. 저녁은 신선한 야채로 시작하는데, 오이와 냉이같은 것은 예외로 식사가 끝날 때 먹어야 하는 것들이다. 삶은 야채도 前菜로 먹는다. 그밖의 요리는 조리한 생선과 고기인데, 염소나 양 고기는 어린 것일수록 좋고, 돼지고기는 중돼지를, 새종류에 관해서는 닭, 자고새, 비둘기를 먹는다. 이 모두는 간단히 조리해야 한다. ... 저녁 전에 물을 마시는 데, 이후 한참동안 계속 마실 수 있다. 마른 사람은 적포도주를 마시고 식사후에는 백포도주를 마셔야 한다. 뚱뚱한 사람은 시종일관 백포도주를 마시는데, 물을 타서 마셔야 한다. 나무 열매는 별로 좋지 않은데, 식사 전에 적당히 먹는 것은 해롭지 않다. ... 저녁 후에는 마르고 제대로 소화 못해 가스가 차는 사람은 즉시 자야하며, 다른 사람들은 자기 전에 짧고 완만한 산보를 한다. 누구나 음식이 아직 위에 있는 동안은 왼쪽으로 먼저 눕고, 배가 부드러워지면 오른쪽으로 돌아 눕는 것이 좋다. 누구든지 등을 대고 눕는 것은 좋지 못하다.

헬레니즘기를 포함하여 전기간동안 그리스인들에게 건강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목표였다. 이같은 인식은 의료계에 깊은 반향을 남겼고, 의사의 사회적, 지적 지위의 상승으로 연결되었다. 2절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초자연적인 신적 권위를 통해 치료자가 행하던 어떤 '힘'의 행사가 그리스에서는 합리적인 자연지식을 통한 행사로 대체됨으로써 神的 원인 대신 자연적인 원인을 통해 질병을 설명하려 했으며, 이를 통해 그리스 의사들은 동시대의 자연철학자들이 과학의 역사에 기여한 것과 필적할만한 업적을 의학에서 거둘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스 의학의 합리성과 관련된 논의는 그리스 의학이 자연철학에 크게 의존했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다. 우선 자연철학에 대한 그리스 의사들의 태도부터 다양하였다. 예를 들어 「식이법에 관하여」 I 권에는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과 천문학, 기상학을 포함한 자연에 대한 지식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는 일관된 주장이 있는 반면, 「고대의학에 관하여」의 저자는 의학이 철학과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 영향에서 벗어나야만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Corpus*의 의학이론들에 그리스 자연철학의 여러 주장이 반영되어 있음은 사실이지만, 그리스 의학의 성과가 당시의 철학계에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자연으로부터 정치로 관심이 옮겨지던 단계에서 철학의 중요한 주제였던 νόμος-φύσις 논쟁은 의학이론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비극작가들 및 투키디데스의 저작이 히포크라테스 저작의 영향을 받았음은 잘 알려져 있다.¹¹²⁾ 아리스토파네스 역시 이오니아의 자연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Corpus*에 실린 의학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회화적 요소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의학용어를 대중들이 친숙하게 이해하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사실이다.

의학적 주제가 지식인들에게도 흥미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에게서 명백히 드러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개업의들뿐만 아니라 '일반교육의 일부로 의학을 공부한 사람', 즉 의료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지만 의학을 공부한 사람도 의학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였다.¹¹³⁾ 플라톤은 분명 이 부류에 들만한데, 가령 「티마이오스」편에는 상당한 분량에 걸쳐 질

112) V. Ehrenberg, *The People of Aristophanes* (Oxford, 1943), p.280.

113) Aristoteles, 「정치학」 1282a 3 이하.

병의 원인이 다루어져 있다. 나아가 플라톤의 이 상세한 병인론이 고대 주석가들에 의해 히포크라테스의 병인론 만큼이나 중시되었다는 사실은 그리스 의학사에서 플라톤의 위치가 결코 주변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¹¹⁴⁾ 이렇듯 의사들이 철학에 관심있었을 뿐만 아니라 철학자들도 의학지식을 중시했다는 사실은 그리스 의사를 일반 지식인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음을 새삼 깨닫게 해 준다. 동시에 이 사실은 그리스 의학의 성격 규명을 위해서는 의학이론을 살피는 것 못지않게 의사들의 사회적 위치와 실제의 진료과정을 살필 필요가 있음을 말해 주며, 아울러 이 논문이 그리스 의학의 실천적인 측면에 보인 관심의 정당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그리스 의사들의 합리성 추구는 자연철학자들과 공유된 것이었고, 이는 교육을 통해 강화된 것이었다. 그 결과, 적어도 고전기 이후에는 상층의 그리스 의사들은 교육받은 지식인이었고, 이는 다른 手作業者들과 크게 구별되는 특징이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의료분야의 종사자들 모두가 훌륭한 교육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도제훈련만으로 추가의 교육없이 의술에 종사한 사람들의 숫자가 교육받은 의사보다 결코 적지 않았으리라 생각되며, 더욱이 천시받아 마땅한 역할이 의료분야와 관련되어 수행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있다.¹¹⁵⁾ 따라서 그리스 의사들의 사회적 지위는 출신과 능력에 따라 크게 달랐는데, 최선의 경우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에뤼키마코스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버지인 니코마코스 등은 의사가 교육받은 최상의 지식인이었음을 말해주는 좋은 예들이다.

의사들에 대한 당대인들의 평가 역시 다양하게 나타났다. 플라톤은 히포크라테스가 돈을 받고 의술을 가르쳤다고 지적하면서도 직업적 교사, 즉 소피스트들에 대한 경멸과는 분명히 대조적인 어조로 히포크라테스를 언급하고 있다. 「프로타고라스」편 311b 이하에서 히포크라테스는 조각가인 폴리클레이토스 및 페이디아스와 동격의 친구로 묘사되어 있으며, 「파이드로스」편 270c 이하에서는 히포크라테스가 파이드로스에 의해 먼저 거론되는데, 그에 대한 응답에서 소크라테스는 히포크라테스의 방법과 설명이 사물에 대한 참된 설명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인정이 히포크라테스에 대한 그 자신의 존경때문인지, 아니면 파이드로스에 대한 대접때문인지는 분명치 않지만, 히포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의 대화 주제로 충분히 거론될 만한 사람이었음은 분명하다. 또 조금전에 언급한 「향연」에서의 에뤼키마코스의 역할은 소크라테스만큼이나 비중 있는 것이었고, 시종일관 아리스토파네스나 알키비아데스와 대등하게 취급되고 있는데,¹¹⁶⁾ 이는 수작업을 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서는 의사가 최고의 작가나 최상층의 귀족과 동등하게 어울릴 수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5. 그리스 의사의 경제적 지위; 의료의 수요와 공급

의사들의 경제적 지위와 평균 소득, 그리고 왕진비 및 각각의 조치에 따른 치료비용들에 대한

114) Lloyd, *Hippocratic Writings* (Penguin Book, 1983), p.39.

115) 전4세기 아테나이의 웅변가인 아이스키네스는 「티마르코스 논박」40에서 티마르코스가 젊은 시절에 徒弟라는 명목하에 실제로는 男娼으로서 피레이오스에 있던 에우티디코스라는 의사의 진료소에서 생활했다고 고발하고 있다. Cohn-Haft, 앞의 책, p.19를 참조할 것. 그러나 Phillips는 환자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증거는 없으나, 이곳에서 티마르코스가 일종의 인턴같은 자격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Phillips, 앞의 책, p.190을 참조할 것.

116) Edelstein, "The Role of Eryximachus in Plato's *Symposium*," *Ancient Medicine*, pp.153-171.

구체적인 증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현대의 관행과는 달리 각각의 조치에 대해 그 때마다 치료비를 청구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¹¹⁷⁾ 치료를 시작할 때 환자의 재산 등을 고려¹¹⁸⁾하여 일정금액을 약정하고 완치될 때까지 돌보았던 것 같은데,¹¹⁹⁾ 그렇다면 되도록 자주 환자를 방문하라는 *Corpus*의 권고¹²⁰⁾는 수익과는 무관한 의사의 의무사항으로 볼 수 있다.

고전기 이전의 사료중 의사의 수익에 대한 유일한 증언은 데모키데스에 대한 것이다.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그는 아이기나와 아테나이에서, 그리고 사모스 섬의 폴리크라테스에 의해 매1년씩 연속 3년 고용되는데, 아이기나에서는 1탈란톤, 아테나이에서는 100미나, 마지막 해에는 2탈란톤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¹²¹⁾ 이것이 연간 총수입인지, 아니면 僱主나 시민들에 의해 보장된 최소의 정액수입이며 치료 때마다 별도의 보수를 받았던 것인지, 또 조수와 진료소 유지비용이 포함되었는지는, 아니면 운송비용이 별도로 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¹²²⁾ 전6세기 후반부터 전5세기 초반에 최고 수준의 의사의 연간수입은 작게 잡아서 6,000내지 12,000드라크마, 즉 숙련노동자의 20배 내지 40배의 수입이었던 것이다.¹²³⁾

일부 의사들이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었음은 분명하다. 상속재산, 혹은 아스클레피오다이—아스클레피오스를 수호신으로 한 의사들의 공동체—의 공동재산때문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¹²⁴⁾ 공공기금 회사가 기록된 碑文들이 의사들의 富를 말해주고 있다. 전4세기의 에브노라는 의사는 아테나이에서 1탈란톤을 기증하였고,¹²⁵⁾ 전3세기 후반에 델포이에서 명예입법된 모스키온의 아들인 필리스토스라는 의사¹²⁶⁾는 코스의 함대 건립에 4,000드라크마를 회사하였다.¹²⁷⁾ 또 비교적 후대인 전1세기의 碑文에는 여러 행정직을 수행하고 많은 기부를 하여 '공동사회의 支柱'로 추앙된 한 의사의 행적이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는 自費로 로마에 친선사절로 간 것이 포함되어 있

117) Sigerist, 앞의 책, p.309.

118) 「교훈」 VI장 (Loeb판 *Hippocrates*, vol. I, pp.318-319).

119) 이 약정금액의 평균치를 추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같은 사실은 고대세계 전반에 걸친 공통점인데, 법제도를 통해 정기적인 세율(tariff)을 확립한 로마제국에도 의사의 소득을 추정할 근거가 되는 제반 기록이 존재하지 않으며 디오클레티아누스의 “가격일람표” 에조차 의사의 치료비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Cohn-Haft, 앞의 책, p.20을 참조할 것.

120) 「예절에 관하여」, XIII 장 (Loeb판 *Hippocrates*, vol. II, pp.294-295).

121) Herodotos, 「역사」 III. 131.

122) Cohn-Haft, 앞의 책, p.20, 주)52.

123) Lloyd, *Early Greek Science*, p.53, 주)1을 참조한 계산 결과이다.

124) Cohn-Haft, 앞의 책, p.21, 주)59.

125) 전319년 이후에 건립된 이 비문은 원래는 *Inscriptiones Graecae* (Kirchner, 1913), 2/3. 1.1.374에 수록된 것인데, Cohn-Haft에 의해 Doc. No.4로 재분류되어 있다. 이밖에도 Cohn-Haft는 여러 자료에서 의사에 관계된 비문들을 뽑아 연대순의 번호를 매겨 분류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주로 그것을 인용한다. Cohn-Haft, 앞의 책, pp.76-85를 참조할 것.

126) Doc. No.20에 이 이름이 나오므로, 다음 각주의 비문에 등장하는 필리스토스가 의사임을 알게 되었다.

127) W.R. Paton & E.L. Hicks, *The Inscriptions of Cos* (Oxford, 1891), 10b. 7-8행, 37-38행. 이 비문은 전3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부자의 명단과 기부금액이 명기되어 있다. 법령 제안자를 제외하면 필리스토스의 기부액이 제일 많다. 같은 명단에 필리포스의 아들인 필리포스가 200드라크마를 기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a. 42-43행), 델로스의 명예입법 비문들(Doc. Nos. 28, 31)을 통해 그도 의사임을 알 수 있다. 한편 Doc. Nos. 18, 19, 29에 기록된 에메니다스의 아들인 헤르미아스라는 의사의 이름도 같은 기부자 명단 (10b. 57-58행)에 들어 있는데, 기부금액은 훼손되어 알 수 없다. 또 같은 명단에 히포크라테스의 후손인—6세손, 혹은 8세손으로 역시 의사라고 추정되는—테살로스의 아들인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도 500드라크마를 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10a. 51행). Sherwin-White, 앞의 책, p.20을 참조할 것.

다.¹²⁸⁾ 로마제국시대에 이르면 사원과 지역사회에 기부하고 중요한 행정직을 맡는 등 그리스 의사들의 경제적 여유와 사회적 지위가 확고하였음을 말해주는 훨씬 풍부한 碑文자료들이 남아 있다.¹²⁹⁾ 반면 로마제국 초기의 노예의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난한 의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실은 고대부터 의사가 돈버는 직업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¹³⁰⁾

의사의 수입과 수련과정, 그리고 진료형태 및 직업윤리와 직결된 중요한 사회적 요소는 의사의 숫자이다. 이는 의료의 수요-공급법칙을 따르며, 개업의들 사이에서도 개인 및 집단간의 경쟁원리를 결정한다. 다른 사회와 마찬가지로 고대 그리스에서도 의사가 항상 요구되고 있었다고 전제한다면, 문제는 적절한 시술을 제때에 베풀기에 충분한 숫자의 의사가 있었던가 하는 질문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 질문에 직접 답할 수 있는 고대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결론은 산재한 단편적 자료들로부터 추론된 몇가지 결론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 대답이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특정 시점에서 개업활동을 한 그리스 의사의 수를 정확히 산출할 근거자료는 없지만, 요구되는 의사의 숫자를 추산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 Cohn-Haft의 추산에 의하며, 1951년 현재 그리스 인구는 고전기보다 약간 많으며 대략 1,000명당 1명 꼴인 7,300명의 의사가 개업하고 있으므로 대략 600만의 인구를 지닌 고전기에는 6,000명의 의사가 필요했다는 결론이 나온다.¹³¹⁾ 물론 이 숫자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추산은 전혀 무용하지만은 않아 적어도 천명 단위의 의사는 필요했다는 추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수백 개의 독립된 폴리스들이 각기 독자적인 의사를 필요로 했고, 당시의 운송수단을 고려할 때 아티카區처럼 중심市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별도의 의사가 필요했을 것이므로, 천명 단위의 의사가 필요했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지 않다. 수요의 측면을 말하는 한 Cohn-Haft의 이같은 추산을 무시할 이유는 전혀 없으며, 설령 이 정도 숫자의 의료종사자—呪術치료자, 민간요법자들을 포함한—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고대인이 현대인보다 의료혜택이 적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한 그 주장을 부정할 근거나 이유도 없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시행한 의료혜택이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될 것이다.

수천 명의 '제대로 된' 의사가 고전기에 존재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한 결론이다. 만일 그리

128) Doc. No.54. 13-14행. Cohn-Haft, 앞의 책, p.21, 주)58을 참조할 것.

129) J. Oehler, "Epigraphische Beiträge zur Geschichte des Aerztestandes," *Janus* 14(1909), 4-20, 111-123. 이밖에도 라틴어로 된 비문자료들에 대해서는 H. Gummerus, *Der Ärztestand in römischen Reiche nach den Inschriften I* (Finska-Vetenskaps Societeten, Commentationes humanarum; litterarum, III no.6.), (Helsingfors: Akad. Buchhandlung, 1932)를 참조할 수 있다.

130) 이같은 결론에 대한 유일한 반대증거는 아리스토파네스의 「폴루토스」 407-408행인데 이것은 전5세기 아테나이의 실제 상황이기보다는 의사의 탐욕에 대한 조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Cohn-Haft, 앞의 책, p.21, 주)61을 참조할 것. 특히 408행의 (Οὔτε γὰρ ὁ μισθὸς οὐδὲν ἔστ' οὐθ' ἡ τεχνή)라는 구절은 「교훈」 VI장 6-7절 (Loeb판 *Hippocrates*, vol. I, p.318)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 의술에 대한 사랑이 있다('ἦν γὰρ παρῇ φιλανθρωπῆι, πάρεστι καὶ φιλοτεχνῆι)"는 구절을 풍자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교훈」의 저술연대는 훨씬 후로 추정되지만 이 구절은 이미 아리스토파네스 당대에 회자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Jones, "Introduction" *Hippocrates*, vol. I (Loeb판), pp.305-311을 참조할 것.

131) Cohn-Haft, 앞의 책 p.24. 그는 *Statistical Year Book 5* (New York, U.N.: Statistical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ffairs, 1953), pp.513-520의 "Medical Personnel and Hospital Beds"라는 제목의 도표 175를 인용하는데, 이 도표에서 인구당 의사비율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의 경우와 견주면 고전기 그리스에서 필요했던 의사의 숫자는 최고 13,333명이 된다. 그러나 야외생활로 단련된 고대인의 건강과 현대질병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런 숫자들이 다소 터무니 없다는 점을 그도 인정하고 있다.

스 의학이 '치료술(leechcraft)'¹³²⁾에 불과한 것이었고, 그것으로 그리스인들이 만족했다면 직조공, 도자기공, 석수 등 다른 여타의 匠人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사'의 공급도 그 수요를 만족시켰을 것이다. 그러나 늦어도 전5세기부터의 그리스인들에게 의사는 '기술' 뿐만 아니라 학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을 의미했고 의술은 '과학'으로 뒷받침된 전문기능이었던 것이다.

히포크라테스의 등장과 코스의 의학학교는 그같은 기대에 대한 대응인 동시에 의사와 의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주체였다. 이같은 평가의 의미는 크니도스 의사들의 몰락과 견줄 때 보다 분명해 지겠지만, *Corpus*중에서도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히포크라테스 僞書'중의 하나인 「아테나이인들의 법령」에 있는 "그리스인들에게 전해진 의학이 환자를 병으로부터 회복시켜 평안케 하고, 사람들을 구하는 많은 의사들이 있기를 바랬기 때문에, 히포크라테스는 너그럽게도 의학에 관한 자신의 저술들을 출판했다"는 구절¹³³⁾은 히포크라테스와 함께 시작된 전5세기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코스의 의학학교는 근대의 의과대학보다는 차라리 같은 시기의 아테나이에 있던 철학학교와 유사했으며, 따라서 코스에서, 또 설립시키는 다소 뒤지지만 비슷한 성격이었던 알렉산드리아의 의학학교에서 매년 배출된 의사의 숫자를 총괄하여도 수십 명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¹³⁴⁾ 따라서 헬레니즘기까지를 포함한 전 기간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의 숫자는 수요에 턱없이 모자랐으며, 이같은 상황은 의사에 대한 전문교육이 시작된 이후에도 '무자격'의 의사가 여전히 활동할 여지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부 의사들이 향유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와 그리스 의사들이 공동으로 누릴수 있던 자율권은 교육받은 의사의 공급이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숙련된 다른 수공업자들의 수입을 훨씬 능가하는 의사들의 소득¹³⁵⁾과 부수적인 사회적 대우는 능력 있는 의사가 모자랐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며, 의사에 대한 면허제도가 그리스에 존재치 않은 이유를 일부 설명하고 있다.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개인적 능력을 검증하고 허가하는 것은 제대로 훈련된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또한 순회진료가 그리스 의사들에게는 당연한 진료형태였다는 사실도 의사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음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이다. 어떤 전문기술 분야이건 遍歷者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반대증거가 없는 한, 그가 방문하는 곳에 같은 업종의 전문가가 없다고 추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¹³⁶⁾ 지역에 따른 편차는 존재했지만 코스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의사의 부족은 전 그리스에 공통된 상황이었다고 보아 마땅하며, 이는 의사들을 대량으로 고용할 수 있는 병원제도의 부재와 함께 순회진료가 그리스 의사들의 통상적인 진료형태로 정착케 만든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 Temkin의 구분을 원용한다면 '돌팔이'들은 일정지역에 머문 반면, 그들과의 경쟁에 자신있던 '진정한 의사'들은 수입의 극대화를 위한 순회진료에 기꺼이 나섰던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런 상황이 수련과정의 遍歷者뿐만 아니라 최고 수준의 의사들마저 순회진료에 나서게 만든 중

132) Cohn-Haft, 같은 책, p.24.

133) *Hippocrates: Pseudepigraphic Writings*, ed. W.D. Smith (Leiden, 1990), p.106.

134) Cohn-Haft, 앞의 책, p.25. 또 Marrou는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의 구성원들은 뮤즈여신을 숭배하는 제의의 봉헌자들(θιασός)로 일정규모를 넘어설 수 없었으며, 더욱이 의학교육은 철학교육보다 훨씬 더 사제간의 인격적인 교류가 필요하므로 코스의 의학학교가 소규모일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H.I. Marrou, *Histoire de l'éducation dans l'antiquité* (Paris, 1948), pp.106-107, pp.264-267. [이 책의 영역본은 *A History of Education in Antiquity*, trans. G. Lamb (London, 1956)이다]

135) 헬레니즘기의 것이지만 의사와 여타 수공업자의 수입에 대한 Tarn의 비교는 유용하다. W.W. Tarn & G.T. Griffith, *Hellenistic Civilisation*, 3rd ed. (London, 1952), p.120을 참조할 것.

136) Cohn-Haft, 앞의 책, p.26.

요한 사회적 유인이었다. 따라서 일정한 훈련을 거친 코스의 의사들은 고용의 기회와 함께 새로운 후원 및 지식습득의 기회를 찾아 해외로 진출하였으며, 많은 碑文과 문헌들이 그들의 행적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